

## 보건교사와 일반교사의 성교육 수업실태, 자료 활용도 및 문제해결 요구도 비교

이 정 란\* · 안 숙 희\*\* · 김 영 혜\*\* · 조 규 영\*\*\*

\* 부산 동현초등학교 보건교사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 부산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Comparison of Teaching Status, Utilization of the Teaching Materials, and the Need to solve the Matters of Sex Education between the School Health Educators and Teachers in the Elementary Schools

Jung-Ran Lee\*, Suk-Hee Ahn\*\*, Young-Hae Kim\*\*, Gyoo-Yeong Cho\*\*\*

\* *School Health Educator, Donghyun Elementary School, Busan*

\*\*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Pusan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Purpose** : This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teaching status, utilization of the teaching materials, and the need to solve matters of sex education between the school health educators and teachers working in an elementary school in Busan.

**Method** : 182 school health educators and 125 teachers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Data was collected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nd analyzed by frequency and  $\chi^2$ -test using the SPSS WIN 10.0 Program.

**Results**: While school health educators carried out most of the sex education in the extra curriculum and physical education class, teachers did in the regular curriculum and physical education class. Regarding the utilization of the teaching materials on sex education, although the majority of school health educators used the teacher's manual, only a few teachers used it. Most of the school health educators used the ICT teaching materials while only half of the teachers did. Regarding the methods to solve matters on sex education, school health educators responded that a sex-related subject should be combined with a health subject, and an independent sex-related subject was necessary. The teachers, however, responded that it was necessary to secure enough time for sex education, the sex-related subject combined with a health subject was necessary, and there is a need to designate a sex educator.

**Conclusion**: School health educators utilized more teaching materials for sex education and suggested more active methods to solve matters related to sex education. Therefore, school health educators should be more active as sex educators, and the subject of sex education should be adopted as a regular course.

---

Key words : sex education, teaching materials, problem solving, school health educator, teacher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어린이들이 성에 대한 건전한 태도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의 인격화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녀간의 인간관계는 평등과 존경이 기본이며 이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은 미래지향적으로 자아존중의 의식을 함양하도록 교육되어야 한다(박귀문과 박미숙, 2004). 성교육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학교가 각각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나, 어린이들의 신체 및 심리의 성장 발달 과정을 교육적으로 해석하고 교육목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학교의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은 1980년 전까지는 대부분 형식적인 성교육 실시에 그쳤으나(장일원, 1985), 80년대 이후 5, 6, 7차 교육과정의 진보를 통해 보다 활발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에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지정된 성교육 담당교사와 일반(담임)교사가 관련교과별로 혹은 재량활동시간을 통해 성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성교육을 창의적 재량활동의 범교과 학습으로 규정하여 정규 교과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2003).

이제까지 많은 성교육 지침서들이 제작되어 왔고 최근 들어 그 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교육 담당자들이 갖는 대표적인 불만중의 하나는 좋은 성교육 지침서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기존의 여러 지침서들의 한계를 최대한 보완하며 발달단계에 맞는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급별로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를 개발배부하여 자료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고(김혜원과 이해경, 2001) 성교육에 대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2003년에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성교육 ICT 활용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 각급 학교에 배부하여 이를 성교육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부산시교육청, 2003).

성교육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체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지식, 성태도, 성역할 인지 등(이성혜, 2002; 이영숙, 2002; 하숙영, 1998)을 조사하였

고, 교사를 대상으로는 성교육 실태와 성교육 요구도(김선희, 1997), 성교육 능력인식 조사(배정일, 2002), 성교육 이행도(이은주 등, 2002)에 초점을 두었으나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와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성교육의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자료 활용도 평가 및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문헌은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7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성교육 담당교사와 성교육 시수가 구체적으로 지정된 현 시점에서 초등학교에서 성교육 담당교사로 지정된 보건교사와 관련교과목 시간에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성교육 수업실태와 성교육시 자료 활용도는 어떠한 지, 문제해결 요구도는 어떠한 지 파악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에서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와 일반교사의 성교육 수업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성교육 자료 활용도와 문제해결 요구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교사와 일반교사의 성교육 수업실태를 조사한다.

둘째, 보건교사와 일반교사의 성교육 자료 활용도를 비교한다.

셋째, 보건교사와 일반교사의 성교육 문제해결 요구도를 비교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보건교사와 일반교사간의 성교육 실태, 자료 활용도 및 문제해결 요구도를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내 초등학교 총 269개교 중 병결, 임신, 출산 등으로 병가, 육아휴직을 한 보건교사를 제외한 230명의 보건교사 전수이다. 일반교사는 보건교사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실제 관련교과에서 성교육을 실시하는 교사 2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설문에 성실히 응답하여 설문지를 회신한 보건교사 182명(79.1%)과 일반교사 125명(54.3%), 총 307명이

최종 연구대상자이며 설문지 회수율은 66.7%였다.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배정일(2002)이 사용한 ‘보건교사와 일반교사의 성교육 수업실태와 교수능력 인식비교 도구’와 교육인적자원부(2001)에서 발간한 교사용 지도 지침서 ‘함께 풀어나가는 성 이야기’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성교육 실태, 성교육시 자료 활용도 및 문제해결 요구도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한 후 보건교사 9인과 간호학 교수 3인의 자문을 얻어 수정·보완하였다.

1) 성교육 수업실태

이 영역은 총 7문항으로 구성하며 성교육 실시시간, 학생별 연간 수업시수, 직무연수 횟수, 강사초빙 등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2) 성교육 자료 활용도

이 영역은 총 9개 문항으로 구성하며 지침서 활용, 성교육 관련지식 출처, 학생용 성교육 교재사용, 성교육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자료 활용, 개발이 필요한 자료 등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3) 성교육 문제해결 요구도

이 영역은 총 4개 문항으로 구성하며 직무연수의 필요성, 직무연수시 필요한 내용, 성교육 시수가 충분한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사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은 2003년 11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시행되었다. 연구자는 보건교사 230명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다. 이후 보건교사에게 우편으로 보건교사용과 일반교사용 자가보고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보건교사는 보건교사용 설문지에 응답하고, 보건교사는 또한 해당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일반(담임)교사 1인을 선정하여 연구 참여에 협조를 구하고, 일반교사용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부탁하였다. 보건교사와 일반교사는 각각 설문지에 응답한 후 동봉된 반송봉투를 통해 연구자에게 우편으로 회신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보건교사와 일반교사의 일반적 특성과 성교육 수업 및 운영실태는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보건교사와 일반교사의 성교육 수업자료 활용실태와 성교육 문제해결 요구도 비교는  $\chi^2$ -test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보건교사는 총 182명으로 100% 전원이 여교사이었고, 30대가 43.4%로 가장 많았으며 89.6%가 기혼자였다. 교직경력은 20년 이상이 31.3%, 10-20년 미만이 27.5%였고, 근무지역은 북부교육청 소속이 23.1%, 해운대교육청이 19.8%, 동부교육청이 18.7%, 서부교육청이 16.5% 순이었다.

일반교사의 경우는 총 125명중 89.6%가 여교사이었고, 40대가 45.6%로 가장 많았고, 81.6%가 기혼상태였다. 교직경력은 20년 이상이 34.4%, 10-20년 미만이 39.2%, 5-10년 미만은 12.0%였다. 근무지역은 동래 교육청 소속이 30.4%, 북부교육청이 24.0%, 해운대교육청이 14.4% 순이었다. 두 군간 동질성을 확인한 결과 보건교사와 일반교사 간에는 성별, 연령, 근무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1>.

<표 1> 보건교사와 일반교사의 일반적 특성

		N = 307		
		보건교사 (n=182)	일반교사 (n=125)	$\chi^2$
		실수 (%)	실수 (%)	(p)
성 별	남	-	13(10.4)	19.77 (<.001)
	여	182(100)	112(89.6)	
연 령	20대	12( 6.6)	20(16.0)	15.23 (.002)
	30대	79(43.4)	35(28.0)	
	40대	62(34.1)	57(45.6)	
	50대 이상	29( 7.5)	13(10.4)	
결혼여부	미혼	19(10.4)	23(18.4)	3.98 (.06)
	기혼	163(89.6)	102(81.6)	
교직경력	2년 미만	16( 8.8)	6( 4.8)	8.13 (.08)
	2-5년 미만	27(14.8)	12( 9.6)	
	5-10년 미만	32(17.6)	15(12.0)	
	10-20년 미만	50(27.5)	49(39.2)	
	20년 이상	57(31.3)	43(34.4)	
근무지역	동부교육청	34(18.7)	17(13.6)	14.38 (.01)
	서부교육청	30(16.5)	16(12.8)	
	남부교육청	15( 8.2)	6( 4.8)	
	북부교육청	42(23.1)	30(24.0)	
	동래교육청	25(13.7)	38(30.4)	
	해운대교육청	36(19.8)	18(14.4)	

**2. 보건교사와 일반교사의 성교육 수업실태**

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교과시간은 보건교사의 경우 재량활동시간 단독(30.8%), 체육시간 단독(16.5%), 그리고 재량활동 또는 체육시간(39.6%)에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일반교사의 경우는 체육시간(27.2%)과 관련교과 시간(37.6%)에 이루어지고 있어 두 군간 성교육을 실시하는 교과시간 활용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49.86, p<.001$ ). 학생들이 받는 성교육 시간이 연간 10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보건교사는 13.1%, 일반교사는 23.2%로 나타나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6.49, p=.01$ ).

성교육 직무연수를 받은 횟수를 살펴보면, 보건교사의 경우는 성교육 직무연수를 1회 이상 받은 사람이 75.3%였으며 일반교사의 경우는 1번 이상 받은 사람이 20.0%에 불과하여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chi^2=90.84, p<.001$ ). 외부강사 초빙에서는 보건교사의 22.0%는 1년에 1회 이상 강사를 초빙한 반면, 일반교사는 8.8%에 불과하여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9.29, p=.003$ ). 강사를 초빙한 경우 강사초빙 이유로 보건교사의 42.5%가, 일반교사의 81.8%가 '성교육을 전문적으로 잘해서'라고 응답하였다<표 2>.

**<표 2> 보건교사와 일반교사의 성교육 수업실태**  
N = 307

운영실태	문항	보건교사	일반교사	$\chi^2$
		(n=182)	(n=125)	
		실수 (%)	실수 (%)	(p)
성교육 실시시간	재량활동	56(30.8)	27(21.6)	49.86
	체육	30(16.5)	34(27.2)	(<.001)
	재량 또는 체육	72(39.6)	14(11.2)	
	기타(관련교과)	23(12.6)	47(37.6)	
	특별활동	1( 0.5)	3( 2.4)	
학생들의	10시간 이상	24(13.1)	29(23.2)	6.49
	5-10시간 미만	42(23.1)	32(25.6)	(.01)
성교육수업	5시간 미만	116(63.8)	64(51.2)	
시수(연간)				
성교육 받은 적이 없다		45(24.7)	100(80.0)	90.84
직무연수	1회 이상	137(75.3)	25(20.0)	(<.001)
외부강사 초빙	한 적이 없다	142(78.0)	114(91.2)	9.29
	1회 이상	40(22.0)	11( 8.8)	(.003)
	전문적으로 잘해서	17(42.5)	9(81.8)	
초빙 이유	행사용 실적 올리기	3( 7.5)	1( 9.1)	
	무료로 제공되어서	10(25.0)	1( 9.1)	
	기타(전체교육)	10(25.0)	-	

**3. 보건교사와 일반교사의 성교육 자료 활용도**

성교육 지식습득의 출처를 살펴보면 보건교사의 경우는 '성교육지침서를 통해서'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62.6%, '인터넷을 통해서'가 15.4%, '성교육 연수를 통해서'가 13.2%, '전문서적을 통해서'가 7.7%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교사의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가 32.0%, '전문서적을 통해서'가 19.2%, '성교육지침서를 통해서'가 18.4% '성교육 연수를 통해서'가 12.0%로 다양했다. 따라서 두 군간 성교육 지식출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76.98, p<.001$ )<표 3>.

**<표 3> 연구 대상의 성교육 수업자료 활용실태**  
N = 307

운영실태	문항	보건교사	일반교사	$\chi^2$
		(n=182)	(n=125)	
		실수 (%)	실수 (%)	(p)
성교육 지식습득의 출처	성교육지침서를 통해서	114(62.6)	23(18.4)	76.98
	성교육 연수를 통해서	24(13.2)	15(12.0)	(<.001)
	전문서적을 통해서	14( 7.7)	24(19.2)	
	인터넷을 통해서	28(15.4)	40(32.0)	
	기타	2( 1.1)	23(18.4)	
성교육 교사지침서 활용 정도	매우 활용한다	41(22.5)	3( 2.4)	154.34
	활용한다	123(67.6)	23(18.4)	(<.001)
	활용하지 않는다	14( 7.7)	51(40.8)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4( 2.2)	48(38.4)	
미활용시 이유	도움이 되지 않아서	4(22.2)	5( 5.1)	
	현실과 맞지 않아서	4(22.2)	4( 4.1)	
	지침서가 있는 줄 몰라서	-	70(72.2)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6(33.4)	8( 8.2)	
	기타, 무응답	4(22.2)	12(12.4)	
성교육 ICT수업자료 활용 여부	예	168(92.3)	61(48.8)	74.01
	아니오	14( 7.7)	64(51.2)	(<.001)
미활용시 이유	사용방법이 익숙치 않아서	3(21.4)	8(12.5)	
	교실여건상 사용이 불편	11(78.6)	4( 6.3)	
	수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	4( 6.3)	
	ICT 수업자료가 있는 줄 몰라서	-	36(56.2)	
	기타	-	12(18.7)	
활용시 효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	.52
	도움이 되지 않는 편 이었다	5( 3.0)	3( 4.9)	(.77)
	도움이 되었다	128(76.2)	46(75.4)	
	매우 도움이 되었다	35(20.8)	12(19.7)	
개발을 희망하는 성교육 자료	다양한 ICT수업자료	42(23.1)	50(40.0)	34.54
	CD	15( 8.2)	15(12.0)	(<.001)
	Videotapes	9( 4.9)	21(16.8)	
	구체적인 모형	111(61.0)	38(30.4)	
	기타	5( 2.7)	1( .8)	

성교육 교사지침서 활용정도를 살펴보면 보건교사의 경우는 ‘활용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67.6%, ‘매우 활용한다’가 22.5%로 90.1%가 수업시 교사지침서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교사의 경우는 ‘활용한다’가 18.4%, ‘매우 활용한다’가 2.4%로 20.8%만 수업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154.34, p<.001$ ). 일반교사의 경우에 79.2%가 교사지침서를 활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72.2%가 ‘지침서가 있는 줄 몰라서’, 8.2%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5.1%는 ‘도움이 되지 않아서’, 4.1%는 ‘현실과 맞지 않아서’ 순으로 응답해 교육지침이 잘 전달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성교육 ICT수업자료 활용여부를 살펴보면 보건교사는 ‘활용한다’고 응답 한 대상자가 92.3%였고, 일반교사는 ‘활용한다’가 48.8%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74.01, p<.001$ ). 보건교사의 7.7%는 활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교실여건상 사용하기 불편해서’가 78.6%, ‘사용방법이 익숙치 않아서’가 21.4%를 차지한 반면 일반교사의 경우는 ‘ICT수업자료가 있는 줄 몰라서’가 56.2%, ‘사용방법이 익숙치 않아서’가 12.5%로 나타났다. ICT수업자료를 활용한 경우 효과를 살펴보면 보건교사의 경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76.2%,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20.8%로 97.0%가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고, 일반교사 역시 ‘도움이 되었다’가 75.4%,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19.7%로 95.1%가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앞으로 개발을 희망하는 성교육 자료유형에 대해서는 보건교사는 61.0%가 구체적인 모형, 23.1%가 다양한 ICT수업자료, 8.2%가 CD, 4.9%가 비디오테이프 순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시한 반면, 일반교사는 40.0%가 다양한 ICT수업자료, 30.4%가 구체적인 모형, 16.8%가 비디오테이프, 12.0%가 CD 순으로 자료개발을 위하여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34.54, p<.001$ ).

**4. 보건교사와 일반교사의 성교육에 대한 문제해결 요구도**

성교육 직무연수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가 보건교사의 경우 42.3%와 일반교사의 경우 11.2%였고, ‘그렇다’는 보건교사의 경우 56.6%, 일반교사의 경우 83.2%로 나타나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37.32, p<.001$ )<표 4>. 성교육 직무연수시 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교사의 경우는 성교육 방

**<표 4>** 연구 대상의 성교육에 대한 문제해결 요구도 N = 307

성교육 문제	문항	보건교사 (n=182)	일반교사 (n=125)	$\chi^2$ (p)
		실수 (%)	실수 (%)	
성교육 직무연수 필요성	전혀 그렇지 않다	-	1( 0.8)	5.28 (.02)
	그렇지 않다	2( 1.1)	6( 4.8)	
	그렇다	103(56.6)	104(83.2)	
	매우 그렇다	77(42.3)	14(11.2)	
필요한 직무연수 내용	성교육 지식	4( 2.2)	30(24.0)	81.32 (<.001)
	성교육 방법	145(79.7)	58(46.4)	
	성상담 방법	8( 4.4)	31(24.8)	
	ICT자료 활용방법	11( 6.0)	1( 0.8)	
	ICT자료 제작방법	10( 5.5)	1( 0.8)	
	기타	4( 2.2)	4( 3.2)	
현행 성교육이 충분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	6( 3.3)	8( 6.4)	1.08 (.30)
	그렇지 않는 편이다	138(75.8)	97(77.6)	
	그렇다	38(20.9)	18(14.4)	
	매우 그렇다	-	2( 1.6)	
성교육 문제해결 방안	독립된 성교과목 필요	39(21.4)	16( 7.7)	84.69 (<.001)
	보건교과에 통합된 성교과목 필요	124(68.1)	66(31.9)	
	성교육 전담교사 배치	4( 2.2)	47(22.7)	
	충분한 성교육시간 확보	13( 7.1)	72(34.8)	
	기타	2( 1.1)	6( 2.9)	

법이 79.7%로 가장 높았고, 그 외 ICT자료 활용 방법이 6.0%, ICT자료 제작 방법이 5.5%, 정상답 방법이 4.4%, 성교육 지식이 2.2% 였다. 일반교사의 경우는 성교육 방법이 46.4%, 정상답 방법이 24.8%, 성교육 지식이 24.0%로 나타났다. 통계검정 결과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81.32, p<.001$ ).

현행 성교육이 충분하기에 대해서는 보건교사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3.3%,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75.8%, 일반교사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6.4%,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77.6%로 나타나, 보건교사의 79.1%가 일반교사의 84.0%가 성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성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보건교사의 경우는 68.1%가 보건교과에 통합한 성교과목의 필요와 21.4%에서 독립된 성교과목의 필요, 7.1%가 충분한 성교육 시간 확보, 2.2%가 성교육 전담교사 배치 순으로 나타나 보건교과에 통합한 성교과목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일반교사의 경우는 34.8%가 충분한 성교육 시간 확보, 31.9%는 보건교과에 통합한 성교과목 필요, 22.7%가 성교육 전담교사 배치로 꼽았으며 7.7%는 독립된 성교과목 필요 순으로 응답하였다. 통계검정결과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84.69, p<.001$ ).

#### IV. 고 찰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성교육 담당교사로 지정된 보건교사와 관련교과목 시간에 성교육을 실시하는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성교육 수업실태, 성교육시 자료 활용도 및 문제해결 요구도를 비교하였다. 모든 보건교사는 성교육을 주로 재량활동시간 및 체육시간을 활용하였고, 일반교사는 성교육을 관련교과목과 체육시간을 활용하고 있었다. 2003년 '전국 학교성교육 실태조사'(교육인적자원부, 2004)에 따르면 성교육 수업은 대체로 관련교과 시간에 31.4%, 재량활동 시간에 21.0% 이루어지고 있었고, 학교 성교육 시수 확보 방법이 관련교과수업 활용을 탈피하여 점차 독립적인 수업시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수행된 부산지역에서는 일반교사는 주로 관련교과시간(37.6%)에 성교육을 실시하는 반면 보건교사

는 재량활동시간 단독(30.8%)이나 재량 또는 체육시간(39.6%)을 활용하고 있어 전국조사(교육인적자원부, 2004)에서처럼 보건교사의 독립적인 시수확보가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보건교사의 13.1%와 일반교사의 23.2%는 학생들이 연간 10시간 이상 성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성교육 시간의 확보가 절실함을 시사하였다. 2003년 '전국 학교성교육 실태조사'(교육인적자원부, 2004)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받는 연간 성교육 시수가 평균 8.2시간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가 수행된 부산지역 초등학교는 이에 비하면 25% 미만의 학생만이 연간 10시간의 성교육을 받고 있어 성교육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이한 것은 성교육 담당자로 지정된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경우 75.3%는 성교육 직무연수를 1회 이상 받은 반면 일반교사는 15.9%만이 직무연수를 받은 적이 있어 성교육을 위한 전문성 확보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2003년에 성교육 관련 직무연수가 18 강좌가 개설되었고, 30시간 이상의 심화연수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시점(교육인적자원부, 2004)에서 직무연수는 성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확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성교육 교사지침서 활용정도를 살펴보면 보건교사의 90.1%가 수업시 교사지침서를 활용하는 반면, 일반교사의 경우는 15.9%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은주(2000)의 연구결과 중학교 보건교사의 63.3%, 관련교사의 17%만 교육부가 개발배부한 성교육 자료를 활용한다는 결과와 유사하게 일반교사는 보건교사에 비해 지침서 활용도가 매우 낮았다. 일반교사의 71.8%가 지침서가 있는 줄 몰라서 활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교사는 성교육 관련교사이지만 보건교사에 비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보건교사는 68.1%가 보건교과에 통합한 성교과목의 필요와 21.4%에서 독립된 성교과목의 필요로 나타나 보건교과에 통합한 성교과목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성교과목에 대한 여러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 모두 '성교육'이 하나의 통일된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고 가정, 체육, 생물, 도덕 등의 교과

목에서 분산 실시하고 있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순(2000)의 연구에서도 성교육 운영방법에 있어서 교사들의 의견조사 결과 여러 교과에서 여러 교사가 참여하여 분산 실시하는 것보다 한 교과에서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다(65.1%)고 보고하였다. 유승직(2001)의 연구에서는 성교육 전담교사 필요성과 성교육 과목 개선에 대해 학생들은 93.8%, 교사들은 80.9%, 학부모는 78.4%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성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먼저 성교육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성교육이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되어 학교보건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과과정 속에서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건교사와 일반교사가 함께 연간 성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할 교육내용을 연계하여 서로 협조하여 실시할 때 학생들은 중복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성교육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교육 담당교사 및 관련교사는 자체 역량 개발을 위해 제공되는 직무연수, 성교육 사례발표, 문제해결방안 모색에 적극 참여하는 열성이 요구된다. 넷째, 이용가능한 시청각 자료의 적극적인 활용과 효율적인 교수방법을 통해 학습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하겠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 재직중인 보건교사와 일반교사간의 성교육 수업실태, 자료 활용도 및 문제해결 요구도에 인식차이를 확인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비교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부산시내에 근무하는 보건교사 182명, 일반교사 125명이며, 자료는 2003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chi^2$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보건교사는 주로 재량활동 및 체육시간에 성교육을 실시하고, 일반교사는 관련교과 및 체육시간을 활용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연가 10시간 이상 하는 경우는 보건교사가 13.3%, 일반교사가 23.2%에 불과하였다. 성교육 직무연수를 1회 이상 받은 보건교사는 75.5%인 반면, 일반교사는 15.9%

에 불과하였다.

성교육 관련지식 출처는 보건교사의 경우 성교육 지침서와 직무연수가 대부분인 반면, 일반교사는 인터넷, 전문교재, 성교육 지침서 순으로 습득하고 있었다. 성교육 교사지침서는 보건교사의 90.1%가 성교육에 활용하는 반면 일반교사의 20.8%만 수업시 활용하고 있었고, 보건교사는 92.3%가 성교육 ICT수업 자료를 활용하는 반면, 일반교사는 48.8%만 활용하고 있었다.

성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보건교사의 경우 99%가 직무연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일반교사는 약 6%가 직무연수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성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교사는 보건교과에 통합한 성교과목의 필요(68.1%), 독립된 성교과목의 필요(21.4%) 등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용 교과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일반교사의 경우는 충분한 성교육 시간확보(34.8%), 보건교과에 통합한 성교과목 필요(31.9%), 성교육 전담교사 배치(22.7%)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교육 자료 활용도와 문제해결 인식도가 높은 보건교사가 성교육 담당교사로서 적극 활용되어야 하고 학교보건교육의 틀 안에서 정규교과목으로 채택되어 연간 성교육 수업 시수도 확보되어야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1). 교사용 성교육지도 지침서: 함께 풀어나가는 성 이야기.
- 교육인적자원부 (2002). 교육인적자원부 성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
- 교육인적자원부 (2003). 교육인적자원부 성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
- 교육인적자원부 (2004). 2003년 전국 시도 교육청 학교 성교육 실태 조사 현황.
- 김선희 (1997). 초등학교 성교육 실태와 교사의 성교육에 대한 태도 조사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울산.
- 김혜원, 이해경 (2001). 고등학교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함께 풀어나가는 성 이야기. 교육인적자원부.

- 박귀문, 박미숙 (2004). 부산교대부속초등학교, 활동중심 사고전략을 통한 생각하는 수업. 「생각하는 교실 만들기」 현장 지원 워크숍 자료.
- 배정일 (2002). 보건교사와 일반교사의 성교육 수업 실태와 교수능력 인식비교.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 학술논문.
- 부산시 교육청 (2003). 부산시 교육청 초·중·고 성교육 ICT활용 교수·학습지도 자료.
- 유승직 (2001).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교육 요구도 및 성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충남.
- 이성혜 (2002). 성교육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성지식 및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부산.
- 이영숙 (2002). 성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부산.
- 이은주 (2000). 양호교사와 관련교사의 성교육 이행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부산.
- 이은주, 김영혜, 이화자 (2002). 보건교사와 일반교사의 성교육 이행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8(2), 199-209.
- 장일원 (1985). 성교육에 대한 중학교 교사들의 의식 조사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정혜순 (2000). 중학교 성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하숙영 (1998). 성교육이 여자 중학생의 성 지식과 성 태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대구.